

삼성디스플레이, 매출 10兆 시대... OLED 투자 확대

“폴더블·전장 등 신제품 투자 늘려
내년부터 OLED 수요 확대” 기대
2019년부터 QD-OLED도 본격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전경.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의 순항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0조원 매출을 돌파했다. 액정표시장치(LCD)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 전장 등 신규 제품 비중을 늘려가는 등 OLED 투자를 더 확대할 전망이다.

1일 IB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패널 부문에서 올해 3분기 매출 10조900억원, 영업이익 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에서는 OLED의 역할이 컸다. OLED 판매는 이번 3분기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신제품에 플렉시블 OLED 패널을 공급한 영향이 컸다. 앞서 애플은 지난 9월 폴스크린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

널을 탑재한 아이폰XS와 XS맥스를 출시했다.

또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올해 하반기 AMOLED 패널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내놓는 등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AMOLED 패널을 탑재하기 시작

했다. AMOLED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삼성이 돌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권영 삼성디스플레이 상무는 “스마트폰에 OLED 패널이 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OLED 수요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분기 스마트폰 패널 1억1450만대를 출하하며 스마트폰 패널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BOE가 6640만대, 티안마가 5530만대를 출하하며 뒤를 이었다.

LCD 판매도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다. LCD 패널 가격이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급락했지만 지난

7월부터 반등하기 시작, 이후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향후에도 퀀텀닷, 8K 등 고부가 제품 판매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폴더블, 전장 등 신규 분야로 패널 사업 확대해 OLED 패널 사업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2019년부터 QD-OLED 투자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 삼성디스플레이의 QD-OLED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설비 투자 시기는 2019년 하반기일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큰 방향성을 연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현대자동차그룹, 공식 홈페이지 개편

기술혁신·전략투자 등 내용 추가

현대자동차그룹이 공식 홈페이지의 기술혁신, 전략투자 콘텐츠를 개편했다.

1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이번 콘텐츠 개편은 기존의 공식 홈페이지 내 그룹 및 그룹사 소개, 사회공헌 활동, 미디어 채널, 인재 채용 메뉴에 기술혁신 및 전략투자에 대한 홍보 내용을 추가했다.

기술혁신 메뉴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차량전동화, 신소재, 스마트홈, 에너지, 기타 등 7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쉬운 이해를 돕는 인포그래픽스, 기술홍보 영상 등을 담았다.

전략투자 메뉴는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한 5대 사업군인 인공지

능, 로봇, 모빌리티, 에너지, 오토모티브 영역에 속한 각 기업 현황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better future)’이라는 그룹의 비전 아래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해 관계자들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거듭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브랜드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양성운 기자



KT 기가지니로 제어하는 로봇청소기 출시

KT가 기가지니로 제어하는 인공지능 로봇청소기를 내놨다. KT는 11월 1일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은 KT와 로봇 전문기업 유진로봇이 제휴해 만든 제품이다. 유진로봇의 로봇청소기인 아이클레보에 기가지니 음성명령 인터페이스를 추가했다.

8개 음성 명령어 지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리모콘이 없어도 기가지니에 명령을 내리면 작동 상태나 모드 변경, 충전 등 작동이 가능하다.

그 밖에 예약, 나만의 청소모드 설정, 실시간 지도 그리기 등 편의 기능도 탑재했다.

기가지니와 연결 방법도 간단하다. 모바일 앱인 ‘KT 기가지니 홈 IoT’ 제휴사 등록 메뉴에서 유진로봇 계정을 1회만 등록하면 된다. 이후에는 별도 설정 없이 음성 명령을 이용할 수 있다.

KT는 1일부터 KT샵에서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을 판매한다. 11월 중에는 프로모션 가격으로 판매하며, KT인터넷과 TV 신규 고객에는 추가 할인도 주어진다.

/김재용 기자 juk@



KT는 기가지니로 제어하는 로봇청소기, ‘아이클레보 기가지니 에디션’을 출시했다. /KT

날렵한 디자인에 강력한 터보엔진 장착

현대차 ‘더뉴 아반떼 스포츠’

커스터마이징 추가로 경쟁력 UP

현대자동차가 지난 9월 출시한 ‘더뉴 아반떼’에 1.6 터보 엔진을 장착한 ‘더뉴 아반떼 스포츠’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성능, 다양한 첨단 주행지원 시스템 및 편의사양 등을 갖춘 더뉴 아반떼 스포츠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더뉴 아반떼 스포츠는 ▲스포티한 감성의 스포츠 모델 전용 디자인 ▲길어진 전장과 낮아진 전고로 날렵해진 이미지 ▲강력한 동력성능 ▲고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 ▲스포츠 모델 전용 커스터마이징 제품 추가 등으로 상품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전 모델인 ‘아반떼(AD) 스포츠’보다 50mm 길어진 전장과 기본 모델인 ‘더뉴 아반떼’보다 5mm 낮아진 전고



현대차 더뉴 아반떼 스포츠 실내모습.

는 더뉴 아반떼 스포츠의 날렵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 외장 컬러는 7개 색상으로 운영되며 골든 플래시의 경우 더뉴아

반떼 기본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는 더뉴 아반떼 스포츠만의 특별한 색상이다.

가솔린 1.6터보 엔진을 장착한 더뉴 아반떼 스포츠는 최고출력 204마력(p.s), 최대토크 27.0kgf·m, 복합연비 12.0km/l (7DCT 기준)의 파워풀한 동력성능을 갖췄다.

더뉴 아반떼 스포츠의 가격은 ▲MT 트림이 1964만원 ▲7DCT 트림이 2217만원 ▲프리미엄 트림이 2365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위아, 친환경 차량부품·스마트팩토리 시장 진출

2030년까지 연매출 16조원 목표

현대위아가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친환경 차량부품 및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제조사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현대위아는 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본사에서 ‘비전 결의 대회’를 열고 ‘WIA, The Next Solution(현대위아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솔루션이 됩니다)’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발표했다. 첨단 기계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동성’을 구현하고 ‘스마트 네트워크’로 제조업 혁신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위아는 구체적인 비전 달성 전략으로 ▲넥스트 모빌리티(미래지향 이동성 구현) ▲넥스트 테크놀로지(첨단 미래기술 선도) ▲넥스트 퍼서버리티(상생 및 혁신 창출)를 내세웠다.

현대위아는 “친환경 4륜구동 제품과 열관리 시스템 등 친환경 차량부품과 스마트팩토리 솔루션·로봇 공급업체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성장방안을 함께 내놨다.



현대위아 직원들이 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현대위아 본사에서 전시한 ‘비전트리’ 앞에서 새 비전 ‘WIA, The Next Solution’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위아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 매출 16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위아는 ‘넥스트 모빌리티’의 일환으로 ‘차세대 4WD(4륜구동) 시스템 전문 부품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친환경 4WD 시스템을 개발하고, 오는 2025년까지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4WD 시스템의 양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팩토리를 상용화하고 협동로봇 시장 진출 계획도 발표했다. 현대위아는 현재 창원1공장과 서산공장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RiS’를 상용화해 비전 ‘넥스트 테크놀로지’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iRiS는 생산현장의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제어하는 공작기계 중심의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이다.

/양성운 기자